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정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환경 불안 등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 일자리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청년 실업률은 1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창업시장은 날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창업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과 고용간의 선순환 구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안정, 지속성장의 토대를 제공하여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 최선책일수 있다 (김홍 2012). 그러나 창업이 실업률 문제해결의 최선은 아니며, 창업을 한다고 성공을 보장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013년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재편·가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 총 342만개중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96만개로 약 86.6%를 차지하고, 종업원 수는 578만 명으로 약 3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실패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2015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창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로 나타났으며, 2년 생존율은 46.3%, 3년 생존율은 38.0%, 4년 생존율은 33.4%, 5년 생존율은 30.9%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옛날식 사고방식, 전 근대적인 경영,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창업 등의 특징으로 실패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1인 기업이 많아 성장이 멈춘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다산다사의 특성과 과당경쟁에 의해 생존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부터 2013년도까지 평균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6.7%로, 그리스(32.0%), 멕시코(28.6%)에 이어 3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인 15.9%보다 10.8%포인트 높게 나타나 과당경쟁이 치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공공정책 및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였다. 이후 소상공인법(2000년)이 제정되고 소상공인진흥원이 발족(2006년)되면서 소상공인의 지원기반이 정비되었다(이용두, 2013). 2015년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승격

* 이정관 대전대학교 박사과정, 010-5452-9369, lgjlk@hanmail.net

되어 소상공인 육성 및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분야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지속된 내수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외 여러 여건으로 볼 때 내수 회복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중요한 영역이고 서민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실업문제가 대두되면 창업을 장려하고 자영업의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면 체질개선이나 차별화,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조에서 보면 스스로 생존하라는 게 현실인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입점 반대 투쟁을 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계층은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정부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 2006년부터 시작해 10년을 넘어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컨설팅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4,700건(약 40억 원), 13년 6,100건(약 59억 원), 2014년도 5,000건(약 50억), 2015년도에는 4,000건(약 50억 원)의 컨설팅이 수행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들이 펼쳐지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고, 소상공인 컨설팅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여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로는 소상공인 관련된 각종 문헌, 서적, 논문, 국내외 정기 간행물, 국내외 소상공인에 대한 일간지, 잡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이론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범위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의와 특징,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요인, 소상공인의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구성한다. 제3장.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된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컨설팅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진행했던 수진업체

의 대표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 컨설팅의 만족도와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검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조사대상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상공인의 정의 및 특징

1)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청의 정의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그 후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가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631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지원계획 수립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 되면서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다(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 20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기준이 업종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소기업에 대한 규모 차이로써의 구분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인의 정의를 따르다 보면 회사형태를 취하기 어려운 1인 지식기반 기업의 전부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영업자 개념의 사업체 다수가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표 2-1> 소상공인의 범위

구 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광업	10인 미만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과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자료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소상공인의 특징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들은 주로 중소기업에 납품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미용실 등 우리 실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며,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업종이다. 생계형이란 창업을 하여 큰돈을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절실한 입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창업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권영남, 2010).

2015년 한해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시중에 약 10조원 규모의 돈이 풀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들의 급여는 그 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장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받는 급여가 충분치 않다. 소득 규모에 맞춰 늘어난 소비 수준을 다시 줄이기는 담배를 끊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한 쪽이 그만 둘 경우 한 명의 소득 단절로 가정은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자마자 곧바로 창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상공인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창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창업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 하였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많은 자금이 없어도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1인 창업, 가족창업, 무점포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 날로 악화되는 고용 시장의 돌파구로 창업을 활성화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내 놓는바, 그 어느 때 보다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 졌다.(권영남, 2010).

소상공인은 다종다양한 산업현장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사회적 문제의 발단이 되는 실직에 대응하여 소규모 창업을 통해 자기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IMF 이후 정리해고를 당한 대량 실업자의 생계를 위한 창업과 재취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성장 지원과 소규모 창업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소규모 제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운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2005년 12월 28일 소상공인 지원기구를 확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던 재래시장 소기업과를 소상공인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06년 5월에 소상공인지원단을 설립하여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정종희, 2015). 2016년 현재 소상공인지원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승격되어 소상공인 육성 및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2>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	
교육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경영교육, e러닝,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참살이창업교육,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교육,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 상인·점포 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 교육, ICT 교육, 선진시장 탐방,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 아카데미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시장자문, 점포지도, 무료법률구조 지원	
자금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환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창업 및 경영개선 등 보다는 경영환경 조성 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2-3>소상공인 컨설팅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일반 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일반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가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예비창업자
위기진단컨설팅(역량 Jump-up 프로그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일반컨설팅 수혜업체 중 전년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또는 2년 이상매출액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III.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소상공인 컨설팅이 소상공인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중희(2015)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정부지원프로그램 중에는 정부의 자금지원프로그램과 정부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경영성과와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제안하였다.

정갑수(2015년)의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원제도의 만족도는 자금지원제도가 4.4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컨설팅 지원제도가 4.40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교육지원제도의 경우는 3.94로 다른 지원프로그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성덕(2013)의 소상공인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지원, 컨설팅지원, 자금지원의 3가지지원프로그램은 단독으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영자 특성과 상호작용에 변수를 투입했을 때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동락(2012)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이 마케팅 차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부분은 마케팅 차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관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IV. 연구의 제언

1. 제언사항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소규모 인력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다양한 경영전략을 진단, 문제를 개선해 줌으로써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영남(2010), “소상공인 창업의 성·패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희(2011), “대전소상공인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김용집(2014),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 요인과 창업의지의 관계연구“ 「벤처창업 연구」 제7권 1호
- 노경훈(2006), “소자본 창업 및 소상공인의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 : 성인교육시장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덕(2013), “소상공인의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화(2008), “한국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국책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두(2013), “소상공인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소상공인진흥원, 정책리포트
- 전순옥(2015),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대토론회
- 정갑수(2015), “소상공인지원제도가 경남지역소상공인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경안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호(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중희(2015), “소상공인의 경영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 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연(2013),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과 경영지원서비스가 운영역량 및 운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용하(2006), “소상공인 창업 실패에 다른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락(2012), “정부의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